



독수리의 날카로운 부리가 확연하다.



독수리가 물고기를 낚아채기 위해 허강하는 모습.



박쥐가 날개를 편 채로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



큰 귀와 코만 봐도 코끼리 형상임을 알 수 있다.

갯바위 주변 코끼리·독수리·박쥐 바위 있다

동물형상 바위 대거 발견...市, 관광자원화·보존 대책 시급

‘천연기념물 500호’인 목포 갯바위 주변에서 동물형상을 한 희귀바위들이 다수 발견돼 화제다. 목포시는 동물형상 바위들을 갯바위와 연계해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목포 갯바위가 풍화 침식작용으로 마모·탈락하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5월 16일자 11면) 이후 갯바위 주변 바위 생태계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면서 목포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9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최근 고고학을 전공한 양모(58)씨가 갯바위 인근에 있는 갯바위에서 독수리, 코끼리, 박쥐, 호랑이, 사자 등 다수의 동물 형상을 발견했다.

특히 독수리와 코끼리 형상은 누구나 쉽게 알

아볼 수 있을 만큼 윤곽이 뚜렷해 보는 이들의 감탄사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날카로운 부리와 눈매를 갖춘 독수리 형상은 정면에서 보면 날개를 길게 펴고 부리 앞에 있는 먹이(물고기)를 낚아채려는 듯 활공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 코끼리 형상의 경우 커다란 귀와 길게 늘어뜨린 코를 볼 때 한눈에 코끼리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박쥐형상은 바위까지 검은 색채를 띠어 자연의 신비로움이 느껴진다.

이와 함께 갯바위 왼쪽에 있는 갯바위에 발톱을 내밀고 엮여 있는 수사자 형상도 이채롭다. 특히 조위에 따라 발톱이 물에 잠겼다가 드러나

는 것을 반복해 신비로움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갯바위 인근 바위들이 다양한 동물형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갯바위의 유명세에 묻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바위에 얽힌 이런 소재를 테마로 ‘이야기가 있는 갯바위’를 부각할 경우 타지역에 있는 갯바위와 차별화를 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물형상 갯바위를 제보한 양씨는 “이들 동물형상을 다양한 스토리텔링으로 엮어낸다면 갯바위와 함께 이색 볼거리로 가지는 물론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목포시가 갯바위 보존대책 수립을 위해 진행 중인 용역에 이를 포함시켜 갯바위 인근 갯바위에 대한 보존 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흥률 목포시장은 “갯바위 주변 갯바위에 얽힌 동물 형상을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관광 상품화하는 데는 제안에 공감한다”면서 “현재 전국의 젊은이들과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겨냥해 갯바위~평화의 다리까지 1.2km를 ‘스토리가 있는 테마 거리(연인의 거리)’로 지정해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는 시책을 추진중인 만큼 이와 연계해 관광 상품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 갯바위는 풍화작용과 해안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풍화혈(風化穴·tafon)로 인위적 요인 없이 순수 자연적인 과정으로 빚어진 자연 조각품이다. 다른 지역 풍화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희귀성을 가지고 있는 등 학술적 가치가 높아 지난 200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목포=글·사진 고규석 기자 youosu@

여성 구직자 여기 모여라

22일 실내체육관 ‘일자리 박람회’

전남 서남권의 여성 구직자들과 구인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2016 전남여성 일자리박람회’가 오는 22일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경력을 갖춘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는 목포와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진도, 신안 등 전남 서남권 9개 시·군에서 구직자 17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현장 참여 30개, 간접참여 165개 등 총 195개 기업이 참여하며, 225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 부대행사로 인재채용관, 컨설팅관, 직업&창업체험관 등도 운영된다.

김의숙 목포시 여성가족과장은 “직업 경험이 부족한 여성들에게 취업 장벽은 여전히 높고 취업준비교육도 높게 나타나 목포시는 취업준비교육과 구인구직 만남의 장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여성취업률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가 구직자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서남권 중소기업에는 우수 인력 확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市, 읍도서 ‘이동 시청’ 운영

민원 청구·의료 서비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표방한 목포시가 21일 ‘도서지역 소통의 날’을 운영을 위해 섬지역인 읍도를 찾아가고 있다.

19일 목포시에 따르면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과 민원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한 이동시청을 운영한다.

읍도 이동시청에는 종합 민원처리반을 비롯한 한 의료 봉사반, 전기·가스 점검반, 영농·영아 상담반, 농기계 수리반, 이·미용 서비스반 등 16개 반 147명의 공무원과 자원봉사자가 참여한다.

특히 목포시는 이날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섬 주민의 건강진단을 위해 보건소와 치과 의사회·한의사회 등 민관 합동 의료 봉사반을 편성하고, 침·뜸 한방치료, 치아 검진, 골밀도 검사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경운기 등 농기계 점검 수리와 함께 영농 상담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 가구 등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점검 및 노후화된 부품 교체 작업도 벌인다.

이와 함께 박흥률 시장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주민과의 대화’를 2시간동안 진행한 뒤 경로당·불우 이웃·도배 현장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한편 지금까지 총 13차례 실시된 이동시청은 어업활동과 농번기를 감안해 상반기에는 읍도에서, 하반기는 달리도에서 개최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장애인 콜택시 ‘행복 콜택시’로 새출발

운행시간 늘리고 임산부·어르신들도 이용 가능...市 조례 개정

목포시가 장애인 콜택시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전면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목포시는 장애인 콜택시를 ‘행복 콜택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용 대상자 폭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또 그동안 장애 1·2급과 중복 3급만이 이용



목포시 읍해동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는 한 장애인이 콜택시에 장착된 리프트를 이용해 탑승하고 있다.

하던 것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를 비롯한 임산부와 일시적 체력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운행시간은 기존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17시간만 운행하던 것을 24시간으로 늘리고, 운행지역도 관내 및 인접지역에서 전남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목포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1만3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이동 제약을 받는 장애인은 4500여명에 이른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용 대상자도 1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목포시는 내다보고 있다. 목포시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 1·2급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전남도 최초로 지난 2008년 1월부터 장애인 관련 단체와 민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9년째 운영되고 있다.

시는 특히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통 약자를 위한 복지시책으로 그동안 차량 12대를 구입·운영하고 있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상 의무 도입 대수인 15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osu@kwangju.co.kr

고용청, 조선업 실직자 생활안정 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자진신고 운영

목포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영성)은 19일 “조선업 고용사정 악화로 이직할 이후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8일까지 3개월 동안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근로자가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유발생일(임·퇴사 등)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자격 취득·상실,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신고 미이행 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에는 조선업 전직률 50% 이상 기차재업체, 조선업 사업장 내 기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특히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에 피보험자격을 가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하는 한편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이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목포=김춘숙기자 kjs0533@kwangju.co.kr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GWANGJU HEARING AID CENTER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